

「한국과학기술翰林院」 세운다

과총, 元老 50여명 참석 발기인대회 열어

10월6일 창립총회 열기로
이학등 5부 12분과로 구성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국내 과학기술계 원로와 석학들로 구성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을 창립하기로 하고 지난 7월28일 타워호텔에서 成



이날 발기인대회에 참석한 과학기술계 인사들. 앞줄 왼쪽부터 미과지과총명예회장·장·선다정과총회장·권이학술원원차·뒷줄 왼쪽부터 정만지전포총회장·박태원 이하대 명예총장·이상수과기원명예교수·김기원과기원이사장·박근식자연연구소원·구위원·정근모과기술원차.



과총 주최로 열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발기인대회 전경. 이날 발기인대회에는 成樂正 과총 회장을 비롯, 閔寬植 과총명예회장, 金東一 과총 상임고문, 鄭助英 과총 상임부회장, 李相洙 위원장, 權彝赫 학술원 회장, 趙完圭 前교육부 장관, 金基衡 한국과학기술원 이사장, 朴泰源 이하대 명예총장, 鄭根謨 고등 기술연구원장, 朴肯植 한국자원연구소 연구위원, 丁明植 前 포철회장, 張世喜·趙鏞涉·李相燮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학·공학·농수산·보건 및 정책 연구부 등 5개부 12개 분과로 운용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회원은 임기 4년에 연임이 가능한 정회원, 원

로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회원은 회원심사위원회에서 철저한 사전심사과정을 거쳐 선출하게 되는데, 특히 과학기술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남긴 과학기술자중에서 참신한 중진 과학기술자를 대거 참여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학술활동과 대정부 정책건의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난 90년부터 설립을 추진해온 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민간학술기관형태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획기적 도

약을 위해 정부의 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자문, 정책건의는 물론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대처하는 각종 학술연구 진작 및 국제교류, 권위있는 과학기술전문학술지 발간 등의 사업을 펼치게 된다.

이날 발기인대회에서는 운영규정(안)과 회원심사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고 94년도 주요사업방향을 정했으며 창립총회는 오는 10월6일 오후 외교안보연구원강당(예정)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과학기술분야의 아카데미는 영국의 왕립학사원(Royal Society, 1660년 설립, 회원1천2백명), 프랑스의 과학아카데미(Academy des Sciences, 1666년 설립, 회원 5백여명), 미국의 국립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 1863년 설립, 회원 1천7백여명)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설립되어 정책자문 및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在美과협회장단, 과총방문

9월 생명과학분과 워크숍일정 협의 在加과협회장도 내방, 한민족대회개최 논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成樂正 회장은 7월20일 재미한인과학기술자

협회 徐文源회장과 柳斗榮차기회장의 예방을 받고 오는 9월22일부터

24일까지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94 국내외한국과학기술자학술회의 생명과학분과워크숍 개최일정 등 현안에 관해 협의했다.

과총과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생명공학 최근의 발전동향」과 「생명공학 기술 개발정책 및 계획」 등 2개세션으로 나뉘어 이상섭 서울대교수 및 채영복 한국화학연구소연구원, Arnold Demain박사(MIT), 이서구 박사(NIH) 등 국내학자와 외국 전문가 18명이 최신연구결과 발표와 열린 토론을 벌이게 되며 9월21일부터 11박12일 동안의 생명과학관련 연구소 등의 견학 등이 있게 된다.

鄭助英 과총상임부회장도 함께한 이 자리에서는 또 전세계에 퍼져있는 13개 지역의 재외한국과협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9월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열릴 '94 세계한민족 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 및 임원



◇선정 과총회장(중)이 재미과협회장단의 예방을 받고 주총회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회의 개최에 따른 회의진행계획에 대해서도 협의했는데 총회의 주요안건으로 내년에 있을 광복 50주년기념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를 비롯, 하반기 Brain Pool사업, 남북과학기술교류 및 협력방안 등을 상정키로 했다.

과총이 주최하고 과기처 후원으로 95년 8월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개최 예정인 광복50주년기념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에는 국내 과학기술자를 비롯 재미, 재독, 재불 등 15개 해외한국과학협회 과학기술자들뿐만 아니라 특히 북한과학기술자와 재일조총련과학기술자를 초청, 광복 이후 발전된 조국의 참모습을 널리 알려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키고 모국의 과학기술발전에 동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7월27일에는 재카나다과학 협회 朱學允회장이 과총을 내방하여 李傑三 과총사무차장과 광복50주년기념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와 '94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회의 총회,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사업등에 관해 협의했다.

2대회장에 姜貴吉씨 在中조선과학협 정기총회

중국조선과학기술자협회는 지난 7월 연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2대회장에 현 姜貴吉회장을 유임시키는 등 임원진을 개선했다.

강회장을 비롯한 새 임원진의 임기는 금년 8월부터 오는 97년 7월까지

3년간이다.

이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제를 이사장제로 바꾸는 등 정관 일부도 개정했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임원진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이사장 = 姜貴吉(연변대 교수)
- ▲부이사장 = 安太庠(북경대 지질

- 계 주임) 金今龍(연변조선족자치주 과학기술협회 주석) 崔鳳柱(중국 과학원 장춘광학정밀기계연구소) 尹宗柱(연변의학원 생물화학계 주임) 鮮干澤(북경대 물리계 주임) 李俊洙(흑룡강성 眼病防治연구소 소장) 全明弘(길림화학공업공사)

特許법원 98년에 설치

특허청·법무부 합의...1審「심판소」도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산업 재산권 분쟁사건을 전담하는 특허법원이 설립된다. 특허청은 최근 국회 법사위와 상공위원회의 절충을 거쳐 오는 98년 3월1일자로 특허법원을 설치하기로 법무부측과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재 특허청이 담당하고 있는 심판소와 항고심판소의 2심체제를 단심제로 바꾸기 위해 특허법원을 98년3월1일부터 설치, 산업재산권분쟁사건 1심을 다루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46년부터 실시되어온 특허청 심판소→특허청 항고심판소→대법원으로 되어 있는 3심제도가 오는 98년부터는 특허청→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의 심급구조로 바뀌게 됐다.

법무부와 특허청은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심급구조 위헌제청이 특허법원 설치 이전에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서울고등법원 특허전담

부서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사건을 맡기로 했다.

심급구조 위헌제청은 현행 특허청의 심판소 항고심판소 심판을 거친 뒤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토록 되어 있는 제도가 위헌이라고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요청한 것이다.

특허청과 법무부는 또 특허법원 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공계 전공 사법연수원 수료자 또는 산업재산권 사건을 전담한 법관을 특허법원에 배치하고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서 심판관으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법관을 특허법원에서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특허청을 비롯한 변리사협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한국발명협회 등은 국회를 비롯한 관계요로에 특허법원 설치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